



제24차 APDC 서울총회 및  
제44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성황리 폐막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열린 제24차 APDC 서울 총회가 인권 총회·개혁 총회로서 대성공을 거두고 폐막했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치과연맹(APDF) 새 회원국으로 베트남이 가입됐으며, APDC서울총회 개최식에서 공포된 '장애인먼저' 치과의료인 윤리 강령이 APDF 실천 윤리강령으로도 공식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는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는 인권 총회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또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아·태치과 연맹회장에 공식 취임했으며 趙幸作(조행작) 아·태치과 연맹 부회장이 또 다시 당선돼 부회장직을 3번 연임하게 됐다.

특히 20여년 간 아·태 치과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헤네디기(Oliver Hennedige) 씨가 사무총장선거에서 낙선, 새 사무총장에 뉴질랜드의 제프리 아난(Jeffrey R. Annan) 씨가 선출 됐다.

제44회 치협 종합학술대회와 겸해 진행된 이번 총회는 '미래의 꿈과 인류봉사 정신을 실현하는 치의학'(Dream, Devotion, Dentistry)을 주제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코엑스 신관 1층과 2층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15개 특강, 15개 심포지엄, 치대생 학술경연대회 등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환영연, 폐회식, 동반자 행사,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성공리에 끝났다.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기자재 전시회는 국내외 140개 업체 381개 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사흘동안 8천여명이 전시장을 찾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NEWS  
&  
NEWS

정재규 후보 제25대 치협회장 당선  
김명득씨 대의원총회 의장

鄭在奎(정재규) 후보가 치협 제 25대 회장에 당선됐다.

201명의 대의원 중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4월 27일 치협 강당에서 치러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기호 1번 鄭在奎(정재규) 후보가 기호 2번 林炯淳(임형순) 후보를 151대 45, 106표 차이로 따돌리고 압승을 거뒀다.

특히 이번 선거는 현 집행부의 현직 부회장인 鄭在奎(정재규) 후보가 安聖模(안성모)·金洸植(김광식)·金載英(김재영) 부회장 후보와 함께 출마하고 林炯淳(임형순) 후보가 文福剛(문복강)·金淳相(김순상)·金榮臻(김영진) 부회장 후보와 출마, 초미부터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林 후보는 끈질긴 추격전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줄곧 선두자리를 지켜온 鄭 후보의 자리를 탈환치는 못했다.

이로써 鄭在奎(정재규) 새 협회장은 앞으로 3년간 치과계의 수장으로서 WTO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대책마련, 새로운 선거제도 도출, 의료광고 허용기준안 마련, 건강보험제도의 정립 등 치과계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할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됐다.

이날 鄭 협회장은 당선 직후 소감에서 "전폭적인 지지에 머리숙여 감사한다"고 밝히고 "믿음직한 집행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金命得(김명득) 대의원이 대의원총회 의장에 선출됐으며 崔光晳(최광철) 대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또 金羽聲(김우성)·鄭忠謨(정충모)·朴鍾琇(박종수) 대의원이 각각 치협 새 감사에 임명됐다.